희망 미래로 '성행'의 신심을

真如苑(신뇨엔)원주
이토신소 대승정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다복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근래에는 세계 곳곳에서 분쟁과 재난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질병과 빈곤을 비롯한 여러 문제로 인해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불안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인들은 결코 희망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신뇨엔에서는 젊은 생명을 이타 제도(利他濟度)에 바친 영존(靈尊) 신도인(真導院)의 가르침인 '성행(成行)의 송(誦)'을 날마다 염송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은 다음의 성구입니다.

"가르침은 굽어지지 않는다. 굽어지지 않기에 진실이라 하며,진실이기에 존귀하다."

거짓과 허위가 아닌, 올곧게 '진실'을 살아간다는 것,즉 세상과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미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일입니다.이와 같은 '선한 원인'을 쌓는 것이, 누구에게나 행복이라는 '선한 결과'를 이끌어 줍니다. 그러므로 '선념(善念)'을 결집하여선하고 참된 실천을 함께 이루어 나아갑시다.

바르게, 함께, 실천을

대한불교법화종 종정
도선 스님



千江月影無從取
一念慈心開佛門
苦海衆生同載渡
法華一乘到彼岸

천 강의 달 그림자 잡을 길 없고
한 생각 자비심이 불문을 여나니
고해 중생 함께 태워 건네고
법화 일승으로 저 언덕 이르리

법화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한 가지 큰 믿음을 일깨웁니다. 중생의 삶이 아무리 거칠고 어두워도, 그 바탕에는 부처의 씨앗이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남을 대할 때 먼저 '저 사람은 왜 저럴까'를 묻기보다, '저 사람 안에도 부처가 계시다'는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서로를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않는 마음이 야말로, 이 시대에 가장 절실한 수행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면, 그 빛이 가정에 번지고, 사회에 번지고, 나라에 번집니다. 법화의 연꽃 향기가 대중의 삶 속에서 환히 피어나길 발원합니다.

공(空)을 밝히는 새아침

대한불교삼론종
종정 혜승 스님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사부대중에게 인사를 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다하면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삼론에서 말하는 공(空)이란 허무가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을 때 드러나는 지혜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 나와 남, 이익과 손해를 붙잡고 스스로를 옭아매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생각 돌이켜 보면, 그 모든 분별은 실체 없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림자를 쫓을수록 마음은 어두워지고, 놓아줄수록 본래의 밝음이 드러납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밖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먼저 내 마음의 불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분노와 욕심의 불은 내려놓고, 자비와 지혜의 등불을 밝힐 때 이 세상 또한 고요히 맑아질 것입니다.

공을 바로 알 때, 삶은 가벼워지고 중생과 함께 걷는 보살의 길이 열릴 것입니다.

부처님 닮아가는 참중생됩시다

세계불교법왕청
중앙정부 대승정 목탁



베풂을 생활화하는 불제자는 공덕을 얻고, 자비심을 지니는 자는 적이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악이 소멸하고, 탐욕을 떠나는 자는 고뇌가 없다 하셨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는 부처님 마음이 되어 겸손하게 소중한 오늘을 살아가며, 교만한 눈으로 보지 않고 오만스러운 말을 하지 않으며 거만한 행동으로 인해 우리로 하여금 상처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스럽게 맺어진 불제자의 인연, 과거에도 인연이었고 지금도 인연이라면 우리는 필연이기에 우리 모두에게 소중합니다.

새해에는 사부대중 모두가 나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는 부처님을 닮아 중생들의 지팡이가 되어 지구촌 구석구석에 밝은 빛이 온 누리에 가득하길 발원합니다. 함께하는 길에 행복만이 가득할 것입니다. 각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길상이로다, 길상이로다, 길상이로다.

지혜 등불 켜 나갑시다

대한불교일붕선교종
종정 대륜 스님



붉은 말이 허공을 차고 오르니 천지에 티끌 하나 일지 않는구나.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희망찬 병오년(丙午年), 붉은 말의 해가 밝았습니다. 역동적인 말의 기상처럼 여러분의 삶에 생기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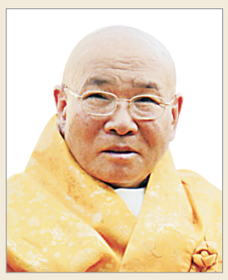
지금 세상은 '나'와 '남'을 나누는 분별심으로 소란스럽습니다. 그러나 거울 속의 그림자와 싸워 이길 수는 없습니다. 갈등은 밖이 아닌 내 마음에서 비롯됨을 알아야 합니다.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멈추고, 안으로 자신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살피십시오.

너와 나는 본래 한 몸입니다.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마음만이 우리 사회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탐욕의 불길 대신 지혜의 등불을 밝혀, 온 세상이 자비로 화평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

대한불교대각종
총무원장 만청 스님



불기 2570년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광명이 여러분의 삶과 수행처마다 가득하시기를 발원합니다. 새해는 늘 새로운 희망과 함께 다가오지만, 불법의 길은 언제나 한결같은 정진을 요구합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고, 삶을 수행으로 전환할 때 비로소 불법은 현실 속에서 살아 숨 쉬게 됩니다. 대각(大覺)은 스스로를 밝히고, 세상을 비추는 깨달음입니다. 대각종의 가르침은 개인의 깨달음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와 함께하는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의 사회는 불안과 갈등, 고립과 상처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불교는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총무원은 새해에도 종도 여러분과 소통하며, 수행과 포교, 그리고 사회적 실천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종단 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전통은 굳건히 지키되, 시대의 변화에 응답하는 열린 자세로 대각종의 길을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초심(初心)으로 미래(未來)를 열자

대한불교총화종
종정 혜각 스님



一心不生하면
萬法無咎이며
無咎無法이면
不生不心이라.

한 마음이 나지 않으면
만법이 허물이 없고
허물이 없으면
법도 없고 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경오년 새해 초심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고 서로가 반목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서로를 자애하고 소통하며 화합과 배려의 존경심으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여, 지금의 어려운 시대 변화에 자신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긍정적 사고력으로 초심으로 돌아가 마음의 평화와 행복·안녕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마음의 등불을 새해 밝히세

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월인 스님



병오년 새해를 맞아 사부대중과 불자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해의 첫 아침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삶의 방향을 살필 기회를 줍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마음은 더욱 분주해졌으나,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한결같이 집착과 분별에 있습니다. 밖에서 답을 찾으려 할수록 마음은 더욱 흔들리고, 안을 비추어 살필수록 길은 또렷해집니다. 나를 이기려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참된 평안이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닦는 것이 곧 세상을 밝히는 일이라 하셨습니다. 오늘의 한 생각을 바로 세우면 내일의 삶이 바뀌고, 한 사람의 깨어남은 가정과 이웃, 나아가 사회 전체의 희망이 됩니다.

작은 선행 하나, 바른 말 한마디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새해에는 말보다 실천을 앞세우고, 분노보다 자비를 먼저 내어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의 등불을 밝혀 나아갑시다.

2026 병오년
뜨거운 열정! 꺾이지 않는 도전! 쉼없는 전진!

韓國佛教太古宗

宗正 雲耕

宗正禮敬室長 東虛

僧正院長 錦龍
首席副議長 靑峰
次席副議長 慧雲
僧正 智山,雲岩,知足,智巖,修庵,圓默,雪雲,普經,南坡,三學,法蓮,圓峰,守敏, 守悅,宗演,知足,慧雲,大隱

元老會議 議長 虎溟
首席副議長 智玄
次席副議長 性悟
議員 法京,能華,東佑,祥明,雲山,錦明,道光,觀正,會梵,慧周,雪峯,雪山,碧山,月峰,一雲,瑞峰

中央宗會 議長 法輪
首席副議長 圓日
次席副議長 慧祐

護法院長 九山
副院長 幻明
委員 惺應,晩愚,松憲,淸虎,智峰,月照,智行

初審院長 六和
副院長 杲峰
委員 哲悟,蓮虛,曉門,晩松,峻凡

中央選擧管理委員長
副委員長 智滿
委員 法一,智勤

總務院長 常眞
行政副院長 道惺
財經副院長 永範
總務部長 正眼
敎務部長
財經部長 曉能
司書室長 道輝
文化部長 月陀
社會部長 法演
弘報部長 法眞
糾正部長 眞華
比丘尼部長 現潭
校任·傳法師部長

敎育院長 才弘
副院長 智觀
布敎院長 能解
考試委員長 休完
法規委員長
社會福祉院長

太古文化遺産傳乘事業團長 智虛

東邦佛敎大學學長 法潭
敎學處長 哲悟
韓國佛敎新聞社長

全國比丘尼會長 玄仲
全國校任傳法師會長
全國信徒會長 圓覺
靑年會長 李正勳

종도일동

한국불교 전통문화전승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길 31(사간동) 전화 02) 739-3450, 팩스 02) 739-3470

※광고 홈페이지 QR. 수익 일부는 AI전법에 활용됩니다.